

스테이크에 화이트와인?... “좋아하는 걸 마셔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마궁와세 ③ 마리아주

점심이니 간단하게 하우스와인 한 잔씩 하기로 한다. 레드, 화이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고기엔 레드, 생선엔 화이트지.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규칙을 지키는 모범생 처럼 모두들 자기 메뉴가 고기인지, 생선이나 해산물인지에 따라 레드, 화이트 와인을 착착 시켜낸다.

스테이크를 주문한 누군가가 화이트 와인을 외치면 다들 의아한 눈으로 쳐다본다. ‘정말 스테이크에 그걸 마시겠다고?’

이번 마궁와세(마실수록 궁금한 와인의 세계)의 주제는 음식과 와인과의 궁합, ‘마리아주’다.

더 이상 ‘고기엔 레드, 생선엔 화이트’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튀니튀니 해도 가장 좋은 궁합은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와인이다.

특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한식



/유토이미지

엔 더 그렇다. 메뉴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나오는 양식과 달리 한 상 가득 차려진다. 식습관도 좀 다르다. 음식을 몇차례 씹고 와인을 마셔 입 안에서의 조화를 느끼는 원칙적인 마리아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네 일상엔 음식을 일단 삼키고, 그다음 와인인듯 다른 술이든 마신다.

너무 까다로운 필요는 없지만 음식과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까지 너무도 다양한 와인을 맞추는 기본 규칙은 물론 있다.

바로 균형이다. 무게감, 강도, 풍미 등 모든 면에서다. 어느 한 쪽이 지배하거나

어느 한 쪽이 너무 밀리지 않게 말이다. 맛과 향이 강한 음식에는 와인 역시 강한 것이 어울린다.

레드 와인의 타닌은 음식 없이는 때론 텁텁하거나 뻑뻑할 때가 있다. 고기의 풍미가 그런 타닌을 부드럽게 해주니 고기엔 레드와인이라 공식 아닌 공식이 생겼다.

화이트 와인이라고 해도 고기의 풍미를 감안하면 된다. 고기가 ‘강’이니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강’한 것을 고르는 식이다. 샤르도네나 알자스 스타일의 피노 그리, 비오니에와 같은 풍미있는 화이트라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화이트 와인 또는

레드 와인에는 없는 특징이 있다. 바로 산도다. 금방이라도 침이 나올 것 같은 산도는 음식의 균형을 잡아주고, 육즙이나 양념으로 입안을 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스테이크부터 소시지나 짭짤한 베이컨까지 돼지고기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하다. 오히려 소고기 스테이크에 어울릴 ‘진한’ 레드는 돼지고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 살코기라면 보졸레나 피노누아 같이 다소 ‘연한’ 레드가 낫고, 훈제햄이나 베이컨에는 매운 음식이나 향신료가 많은 아시아 음식을 먹을 때 처럼 화이트 리슬링이 더 잘 어울린다.

기자는 점심엔 메뉴 불문 화이트 와인이다. 레드 와인을 먹고 나면 불그죽죽, 보라빛, 때론 시커매지기까지 하는 입술때문이다. 나오는 음식과 잘 어울리면 와인 따로, 음식 따로 삼키면 될터. 때론 마리아주보다, 취향보다 중요하게 있을 수 있는 법이니.

/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목하는 힘

하루는 동생이 MBTI(칼 융의 성격유형론을 근거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한 심리유형검사)가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동생은 필자한테 뭘 궁금해하는 편이 아니어서 “왜?”라고 했더니 “너 같은 사람이라 안 엮이게 피해 다니려고”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자식이?’

요즘 사람들은 왜 MBTI에 열광할까. 살기가 팽팽해져 대인 관계에서조차 가성비 따지게 됐기 때문이다. 타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MBTI를 알면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가늠할 수 있어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독서에서도 이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라면 ‘책에 관한 책’을 추천한다. ‘다시, 책은 도끼다’도 그 중 하나. 광재구의 ‘길귀신의 노래’,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문장론’ 등 에세이와 인문서, 잡언집,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광고인 박웅현의 관점에서 해부한다.

‘새는 울고 꽃은 핀다 / 중요한 건 그것 밖에 없다’(정현중, ‘나는 별아저씨’), ‘바람은 마지막 잎새마저 뜯어 달아난다 /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자비에 대하여 / 나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다.’(나희덕, ‘11월’)

저자는 이 시구를 읽고 뭘 느꼈을까. 그가 남긴 감상평을 들여보자. “새소리, 햇



다시, 책은 도끼다

박웅현 지음/북하우스

살처럼 늘 거기 있지만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면 행복하겠구나. ‘나이 들’이라는 것은 늘 거기 있었지만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에 시선을 주어 즐거운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어야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목하는 힘을 길러야겠구나.”

이런 태도로 삶을 살면 출근길 교통 체증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그는 차가 센티미터 단위로 움직이는 중량전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다가 물새떼들이 춤을 추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짝 막힌 도로의 차 안에서 새들이 물을 치고 올라갔다 가 다시 내려올 때의 날갯짓과 물살이 이는 장면을 감상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이 부럽지 않았다고. 352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셀피

윌스토 지음/이현경 옮김/글항아리

셀피 중독자 CJ는 수십만 장의 셀카를 위해 저장공간 이용료를 내고, 새벽 4시까지 사진을 보정한다. 실생활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더 신경 쓰고 화장할 때도 거울이 아닌 스마트폰을 드는 그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이 평균 5억~6억원 넘게 올랐다는 사실에 허탈해한다. 서울시민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마강래 지음/메디치미디어

집 구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지방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 집값이 10년째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이 평균 5억~6억원 넘게 올랐다는 사실에 허탈해한다. 서울시민들



생태문명

이창호 지음/북그루

문명 발달로 인구가 폭증했고 산림, 초원, 습지가 농경지와 마을로 바뀌었다.

또 인간의 생산 활동으로 생기는 각종 공해와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켰

CJ는 NPI(나르시시즘 성격지표)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맛글과 좋아요를 얻기 위해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주기적으로 그런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피드백이 끊기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MZ세대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책은 사회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조작해왔는지 까발린다. 488쪽, 2만2000원.

은 10억원이 넘게 댄 강남 아파트를 보며 승자독식이라고 이틀 간다.

무주택자들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을 보며 근로 의욕을 잃었다. 집값 폭등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책은 한국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면서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에 수도권의 대항마인 메가시티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다.

280쪽, 1만7000원.

고 원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생태문명은 기후위기와 대량멸종,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 산업문명의 사상적 기반인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문명을 만들려는 시도다.

책은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256쪽, 1만48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中 전력난에 외국 기업들 다른 국가 투자처 모색
▲구로다 日銀총재 “기시다 정부서도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사진 뉴시스

▲스웨덴, ‘위드코로나’ 본격화...코로나19 제한 대부분 해제
▲佛주미대사 12일 만에 복귀...‘오커스 반발’ 진정 국면 접어다



▲유엔 안보리, 北관련 회의... 백악관, 북한 미사일 “결의 위반”
▲美 CDC “임신·출산 여성 백신 접종해야” 공식 권고 /사진 뉴시스